

특집 여성주의 공간론의 지평 확장: 다양한 여성주의 ‘공간’의 이야기들

## 감금지리(carceral geography)\* 내 경계, 모빌리티, 순환의 위상학

시설 교차성 논의의 비판적 확장을 위하여

**Carceral Geography as Topologies of Boundary, Mobility, and Circuitry:  
A Critical Lens for the Intersectional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김현철\*\*

- \* 이 글에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단어, ‘the carceral’을 기존 특정한 용례와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던 투옥이나 수용, 구금과 같은 용어가 아닌 ‘감금’으로 번역하였다. 대법원 1991.12.30. 자 91모5 결정(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1991.12.30)에서 정의한 감금행위는 “.....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감금죄를 정의할 때 감금이라고 하는 언표는 대표적으로 상상되는 감금기관인 감옥이나 완력을 포함한 물리적 행위를 통한 구속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특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심리적·무형적 경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제도적·감정적·사회적·관계적 잠재성의 발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이미 그 단어의 용례상 형법에 기대고 있는 구금이나 투옥,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시설)수용, 감염병 등의 방역 사례에서 사용되는 격리과 같이 특정한 용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피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용례를 (교집합의 다이어그램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감금이라는 단어로 ‘the carceral’을 번역하였다. 이는 ‘감금’이라는 단어를 특정 용례에 가두는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추상)기계’(들뢰즈·가타리, 2014)로서의 감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미끄러지고 부딪히며 발현되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열어놓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the carceral이라고 하는 해당 용어의 용례를 상상하고 구체화하고, 또 분석해 나가는 작업이 다양한 학자와 활동가, 개인들에 의해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 Planning, University of Toronto (hchul.kim@mail.utoronto.ca). 본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과 출판을 도와주신 <공간과사회> 편집위원 선생님들, 간사 선생님께 감

2000년대 이후 주로 장애인수용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탈시설 논의는 최근 장애인 권운동 활동가들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주도로 시설화의 교차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차적 시설화와 관련된 공간정치에 대한 연구는 한국 내 지리학계 및 공간 연구에서도 미진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북미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감금지리 논의가 현 한국사회의 교차적 시설화 논의와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감금지리의 개념과 이론을 정돈된 ‘지식’이 아닌 이중의 위상학(topology)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위상학은 학자들 개개인이 딛고 있는 학술적·정치적·지역적·개인적 위상도이다. 둘째, 감금지리 개념과 이론들 간의 위상학이다. 이 이중위상학 사이의 다공적 측면을 고려하며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 학술지인 *Progress in Human Geography*의 2018년 제42권 5호 지면에서 ‘감금적인 것(the carceral)’의 의미에 대하여 영국과 북미 학자간의 학술적·정치적 입장 차이가 3편의 글들로 드러났던 일을 들뢰즈적 의미의 작은 ‘사건(événement)’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요 감금지리 학자들이 개진해 온 감금공간의 경계,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coercive/punitive mobility), 감금회로망(carceral circuitry)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들 개념의 위상학이 교차적 시설화 논의와 조우하거나 긴장·모순되는 지점들을 짚어본다. 결론 파트에서는 감금지리 위상학 및 언어가 어떻게 현재 한국의 여성주의 진영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교차적 시설·화(化)’의 의미를 구체화 및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잠재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해본다.

**주요어:** 감금지리, 강제적 모빌리티, 감금회로망, 시설화의 교차성, 페미니스트 인식론

## 1.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 주로 장애인수용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탈시설 논의는 최근 장애여성공감 및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주도로 시설 교차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서보경·권미란·나영정·손문수·이인규, 2020; 서보경, 2021; 장애여성공감 엮음). 특히 《비마이너》의 지면을 통해 이루어졌던 연

---

사드립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LABS(Lives, Affects, Bodies, Spaces) 동료들과 10to5 동료들, 무더운 여름의 아침을 매일 열어준 김한나 선생님의 코멘트 덕분에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속 기고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비마이너, 2019)는 이후 2020년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장애여성공감 엮음, 2020)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시설사회』의 부제가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이라는 것에서도 보이듯, 해당 논의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시설화’이다. 그동안 학계 및 장애인권운동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탈시설여성의 경험을 통한 장애여성의 주체화 논의(최문정, 2011)뿐 아니라 탈시설 이후의 주거정책/권리 및 주거이동 패턴(오옥찬·김성희·박광욱·오다은, 2021), 탈시설정책이 기존의 시설정책을 보조/강화하는 역설(박형진, 2012, 김소영, 2017)을 통해 탈시설 이후의 삶이 어떻게 시설의 삶과 경로의존적으로 연계되는지를 논하기도 하였고, 시설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공동체원으로 거주하고 노동할 권리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박숙경, 2018; 2021, 주윤정, 2019).

『시설사회』는 이러한 탈시설화 논의와 결을 함께 하면서도 시설화로 초점을 옮겨 좀 더 확장된 질문을 전개한다. 이 질문의 근간이 되는 것은 탈시설 정책 및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동해 나가기 위해 우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탈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화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탈시설운동 및 논의에서 주로 ‘시설’을 장애인시설로 보는 시각을 넘어 ‘시설’이라는 공간적·제도적·법적·실천적 범주 및 정의부터 재고찰하고, 단일시설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시설들 ‘사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시설화의 거시적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에 저항하는 지속적인 학술적·운동적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저서에서는 시설화를 “차별과 지배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때, 낙인의 누적이 예외 없이 빈곤화로 이어지고, 삶의 장소에서 소외되거나 때로 박탈당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손상되며,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교육에서 제외되고, 단지 소모되는 노동에 내몰리

는 도미노”(나영정, 2020: 29)라고 언급하였다. 즉, 본 저서는 입양과 비혼 모, HIV/AIDS, 탈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장애인 시설 등 다층적 시설 공간에서 건강과 교육, 노동 등에 대한 소외가 교차되면서 마치 ‘도미노’처럼 전반적인 삶의 내몰림이 발생하는 연결 지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연결 지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배제·격리의 문제를 재/구축해 오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불어 시설 자체가 장소를 기반으로 격리와 배제의 기능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간논의 역시 시설화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시설사회』는 아직 다층적 시설을 교차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시론 격인 측면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어떻게 시공간적 축들 사이에서 교차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공간상의 교차성에 대한 논의는 여성주의 지리학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Valentine(2007)은 사회과학에서 교차성은 단순히 정체성의 조립이 아니며 구체적인 시공간 내의 맥락 속에서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교차 및 절합하며 특정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는지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초반의 들뢰즈적 선회(Deleuze turn), 비판장애학에서의 몸의 신체성 논의(웬델, 2013), 여성주의 환경담론에서 발전시켜 온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앨리모, 2018), 그리고 사이보그로의 여성에 대한 논의 등(해러웨이, 2020) 몸의 물질성에 대한 선회를 기반으로 한 신유물론(new materialism)적 논의의 영향하에서, 여성주의 지리학은 사회적 정체성과 물질성이 경합·교차하며 특정한 젠더화, 성애화된 권력구조가 공간에 각인되는 과정을 포착해 왔다(브라운, 브라운-립, 2018). 이러한 측면에서 시설의 교차성을 특정 공간을 통해 살펴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설 내 행위(자), 몸들(bodies)과 물들(things)이 특정 사회적/물질적 구조와 제도, 관계 속에서 이동하고 흐르고 격리되는 과정 속에서 감금정치 시스템이 재/구축되는지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

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와 서구유럽에서는 복지와 교정시설, 이주/난민센터를 포괄하는 다층적 시설정치에 대하여 2010년대 이후 이러한 감금공간정치에 대한 공간이론이 감금지리라는 인문지리학과 하위분과 중 하나로 그 논의가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탈시설 운동에서도, 그리고 한국 내 지리학계 및 공간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설의 교차성을 다룰 수 있는 학술적 언어의 개발은 거의 부재하다. 한국에서 감금지리에 대한 논의는 아직 김현철(2019; 2020)에 의해 웹진의 짧은 기고글과 북채터로 소개된 것이 유일하다. 김현철(2019; 2020)의 논의는 도시 내 감금인프라가 구축되는 방식에서 다양한 경계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함을 언급했다는 점, 감금시스템과 도시 내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 각인된 리듬(르페브르, 2013)을 연계하여 다루고, 감금회로망(carceral circuitry)에 대해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회적·물리적 경계의 작동의 경계 사이의 다공적(porous)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다루지 못했다는 점, 도시 내 감금시스템 리듬의 형성과 강화, ‘사이’, 그리고 소멸에 대한 논의를 압축적으로 논의했다는 점, 그리고 감금회로망에 대해 매우 간략히 저술되었다는 아쉬움을 가진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는 현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 활동가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추동되고 있는 시설화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감금지리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때 이 비판적 검토는 감금지리가 북미와 서구유럽에서 논의되어 온 과정을 한국 학계에 정돈된 ‘지식’으로 설명 혹은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는 자칫 북미와 서구유럽에서 ‘감금적인 것(the carceral)’ 및 감금공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의 지대들을 탈맥락화하고 이미 논쟁이 끝난 지식으로 소개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감금공간의 감금성(carcerality) 및 감금시스템의 공간 정치에 대한 이론화와 논쟁의 과정을 위상학(topology)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구조와 권력, 주체, 저항 등 오래된 학계 지형의 논의들에 대하여 영토화 혹은 지형화된 접근이 아닌 비유클리드적 기하학에 기반한 지도(권철, 2010; 브라이언트, 2020; 수재니스 2016)를 그려가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위상도를 살펴본다. 우선 첫 번째로 학자들 개개인이 담고 있는 학술적·정치적·지역적·개인적 위상도이다. 둘째, 감금지리의 개념과 이론의 위상학이다. 이 두 위상학이 어떻게 얽히면서 감금지리 논의 내 이동과 속도, 시간에 대한 인식 및 감각, 주체와 객체, 정체성, 물질성 등에 대한 감각을 구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북미와 서구유럽의 감금지리 논의 및 그 함의들을 하나의 잘 다듬어진 지식이 아닌 들뢰즈적 의미의 ‘사건(événement)’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의미의 논리』(들뢰즈, 1999)에서 ‘사건(événement)’을 다룬다. 들뢰즈는 대문자 사건과 소문자 사건을 분리하는데, 이때 대문자 사건은 태초의 세계, 즉 기관 없는 신체들이 모순되고 불연속적인 자극들과 뒤섞여 있는 혼돈의 장에서 “규정력 혹은 조형력을 부여하여 체계를 성립시키는 원리인 보편성이 잉태되는 모종의 종합”(김조은, 2018: 65)을 통해 파생된 표면(잠재성, 이념이라고도 부르는)에서 “상이한 이념적 요소들을 공명시켜 끊임없이 새로운 독특한 점들”(김조은, 2018: 66)을 생성해 내는 우발점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문자의 사건은 이러한 우발점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멈춤 없이 산출하는 사태”(김조은, 2018: 65)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잠재성에서 열린 빈칸으로 돌아다니는 우발점은 계속해서 복수의 작은 사건들을 통해 의미들을 생성하고, 이는 이후 의미층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들뢰즈적 의미에서 사건은 단순히 우연적인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구조화된 것도 아닌, ‘불연속의 자극들’이 기관 없는 신체들과 종합되면서 일종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의미화된 것을 뜻한다.

이때의 보편성은 절대적 선형의 세계를 전제하는 보편성이 아니며, 특

정한 목적 없이 부유하는 다양한 담론적·물질적 장치/기계들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에 더 가깝다. 즉, 단일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다양한 장치/기계들이 특정한 시공간축에서 특정한 물들(things)과의 열개 속에서 형성되는 정동과 강렬함으로 인해 구조와 세계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계/장치가 존재한다는 보편성은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우연적이지도 않다. 이처럼 ‘사건’은 잠재성으로의 표면을 전제하고 있지만 또한 그 표면에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은 고정된 구조가 아닌 ‘떠돌아다니는’ 우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북미와 서구유럽의 감금지리학자들의 상이한 개인/학계적 위상학이 일종의 보편적 추상기계로의 감금지리의 개념—모빌리티, 경계, 회로망과 같은—과 우발적으로 마주치고 부딪히면서 경합 및 (때로는 물러날 수 없는) 결전의 지점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가는 과정을 사건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감금지리학자들이 참고하고 절합하였던 여러 지적 계보들과 그 언어들(‘더듬어’보는<sup>1)</sup>) 작업이면서 동시에 감금지리의 위상학이 한국에서 진행되어 왔던 시설의 교차성 이슈의 위상학에서는 또한 어떻게 우발적으로 조우하고 절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여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 학술지인 *Progress in Human Geography*의 2018년 제42권 5호 지면을 통해 ‘감금적인 것(the carceral)’의 의미에 대하여 영국과 북미 학자간의 학술적·정치적 입

1) 『트러블과 함께 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해러웨이, 2021)에서 해러웨이는 실패적 존재론을 통해 쓸루세를 주장하면서 ‘실모양의 축수가 있는 존재들’이 더듬으며 그려나가는 실패적 세계를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귀환, 그리고 뿌리와 경로 탐색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해러웨이, 2021: 58)라고 적었다. 이처럼 나도 이 글에서 실패적처럼 이어져 있는 각각의 감금지리 논의의 위상학들 사이에 축수를 세워 더듬어 살펴 보며 논의의 뿌리와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장 차이가 3편의 글들로 드러났던 일을 일종의 우발점에서 이질적 요소들이 소통했던 작은 ‘사건(événement)’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요 감금지리 학자인 Jennifer Turner, Dominique Moran, Karen Morin, Anna Schliele, Nick Gill 등<sup>2)</sup>이 개진해 온 감금공간의 경계,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coercive/punitive mobility), 회로망(circuitry)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들 논의의 지적 위상학(topology)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의 이론화 과정에서 보이는 인식론, 그 중에서도 경계, 모빌리티(mobility) 및 회로망(circuitry)에 대한 사유가 여성주의적 인식론 및 존재론과 만나고 결별하는 지점에 대해 논의한다. 결론 파트에서는 이러한 국외 논의의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차적 시설화 논의의 의미를 전체화로의 종합(synthèse)이 아닌 보편화로의 (언제나 부분적 의미로의) 종합으로 논의하는 데 대해 북미와 서구유럽 기반의 감금지리의 언어들이 어떻게 절합할 수 있을지 간략히 제시한다.

## 2. ‘감금적인 것’을 둘러싼 위상학:

### 2018년, *Progress in Human Geography* 학술지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événement)’

북미와 서구유럽에서 감금지리의 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은 일률적이거나 직선적이지 않다. 인종화된 식민과 지배 역사의 유산, 신자유주의적 질서하에서 인종화된 대규모 수감(racialized mass incarceration) 및

---

2) 이들은 2010년대 이후 주요하게 감금지리의 이론화를 논의해 온 영국 기반의 학자들로, 영국의 Royal Geographical Society with IBG에서 주로 펀딩을 받아 Carceral Geography Working Group(CGWG), Working Group of the RGS-IBG와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감옥의 사유화가 진행되어 온 흐름,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대항해 온 감옥철폐운동(prison abolition movement) 등의 역사적·정치적 맥락이 존재하며, 이러한 다층적인 배경 속에서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감금선회(carceral turn)와 함께 사유의 확장과 이론화가 이루어져 왔던 흐름과 맥락을 함께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문지리학에서는 2010년대 이후 장기간에 걸친 인종화된 대규모 수감(racialized mass incarceration)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공간적·사회적 조건과 해당 조건들이 수행되고 강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교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공간통치 기술/장치들(특히 다양한 건축, 의료 기술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에 대해 주로 논의해 왔다.

Moran, Turner and Schliele(2018a)는 이러한 학계 위상학하에서 2018년, *Progress in Human Geography* 저널에 「감금지리에서 감금적인 것(the carceral)을 개념화하기(Conceptualizing the carceral in carceral geography)」라는 논문을 출간한다. 이들은 푸코의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푸코, 2020)의 마지막 장에서 ‘감금 시스템’이 감옥을 넘어서 있으며, 행동의 강제적 기술을 망라하는 규율적 통제로 묘사하는 데에 집중한다. 이때 가정, 군대, 작업장, 학교, 사법시스템이 크게 5개의 기관 기반의 통제를 하는 일종의 ‘조밀(compact)’한 감금모델로 제시되며, 이 모델들은 감금의 분산적인 방법으로 사회 전반과 얽히게 된다. 즉 이 조밀과 분산을 중심으로 하는 감금계(carceral circles)는 형벌적 처벌 및 통제와 규율의 지적 장치가 조밀한 기관들을 넘어서서 감금적 방법을 사용하는 자선 단체, 주택조합, 도덕증진체(moral improvement societies)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층들(layers)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규율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감금망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감금의 규율적 기술이 사회체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푸코는 ‘감옥 군도(carceral archipelago)’로 불렀다. 저자들은 이러한 조밀과 분산을 바탕으로 한 푸코의 감금계적 상상이 감금지리의 공간적 논의를 개진시켜

갈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푸코가 감옥을 주로 감금적 공간의 중심적 공간으로 본 것에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면서도, 감금지리가 감옥지리학(the geography of prison)의 단순히 더 멋진 이름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감옥’과 ‘감금적인 것’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첫 번째로 감옥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 기관적 형태 및 규율과 통제의 목적·방식 및 그 대상 등이 다양하다. 두 번째로 이들은 푸코가 다양한 기관들을 ‘감옥군도’로 일반화해 부른 것처럼, ‘감옥’이 종종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유적 사용에서 모든 감금시설을 감옥이라 부를 수 있는 ‘제국주의적’ 경향이 자칫 실제 감옥의 구체성을 삼켜버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세 번째로 이들은 감금지리의 논의 그 자체가 곧바로 현 북미와 서구유럽 중심의 감옥 사유화에 대항하기 위한 논의나 감옥철폐운동을 위한 논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즉 이들에게 감금적인 것을 고민하는 것은 북미와 서구유럽 맥락이 전체적인 것이 아닌 지역적인 것이라는 관점하에 감금지리의 논의를 특정한 지역에서의 맥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들은 감금지리를 재포착하는 작업을 요구하면서, 감금성이 관계적이며 경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감금지리가 어떤 공간이 단순히 감금적이냐 아니냐를 이분법적으로 카테고리화하는 논의로 빠지는 것보다 감금성 그 자체의 연속체(continuum)적인 질(qualities) 혹은 조건들에 대한 토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감금성의 조건으로 손상(detriment), 의도, 그리고 공간성을 언급한다. 첫 번째 요소인 손상은 살아 있는, 경험적 손상을 의미한다. 이때 이 손상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처벌과 관계될 수도 있으나 또한 동시에 의도되지 않은, 예를 들어 이전 수감의 경험 속 낙인에 매달려 있는(lingering) 어떤 손상이 일상 경험에서 특

정 맥락에 따라 의도되지 않는 형태로 발생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손상에 대한 정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손상은 의도된 것임과 동시에 경험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두 번째 조건인 의도의 경우, 저자들은 푸코의 규율권력 논의에서 순응적인 몸을 생산하는 권력자의 의도가 선형적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순응적인 몸을 생산하는 규율 권력은 파괴적이면서 동시에 생산적인 효과를 형성하는 관계들 사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감시규율권력의 작동이 일종의 ‘스펙터클’로 대중 앞에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행정적·사회적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일종의 ‘지식 장치’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푸코(2020) 논의와의 연장선상에서 규율권력을 하나의 추상적으로 추동하는 힘이나 목적론적인 의도를 함축한 것이 아닌 언제나 다층적인 에이전시(비/인간, 담론, 물질 모두를 포괄하는) 간 형성되는 비가시적인 통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들의 입장에서 이 에이전시들은 언제나 필요조건적으로 법, 담론, 국가와 같은 특정한 권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연관되어 저자들은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인 공간성 역시 (비)물질적인 기술들과 기계들이 경험, 경합하고 또 저항하는 그 사이의 공간적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감금성예의 조건들을 통해 저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감금지리학자들이 감금적인 것을 구체화해 나가며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글을 맺는다.

이 글은 동일 호 학술지에서 Madelein Hamlin과 Jessie Speer에 의해 「감금적인 것을 개념화하는 것의 정치학[The Politics of conceptualizing the carceral: A commentary on Moran et al.(2017)]」(Hamlin and Speer, 2018)이라는 글로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Hamlin and Speer(2018)는 첫 번째로 Moran et al.(2018a)이 감금기관을 논의하는데 푸코의 조밀과 분산을 바탕으로 한 이분법적 논의로 다시 돌아갔다

고 말한다. 이들은 조밀과 분산의 변주가 아닌 좀 더 유동적인 모델인 감금 연속체(carcceral continuum)로써의 시각을 통해 감금장치가 밀도(intensities)와 장소(sites)의 범주를 가로지르며 도시 내 게토 등의 공간에서 배치되는 역학을 이해하는 방향을 주장한다. 두 번째로 이들은 Moran et al.(2018a)의 글에서 논의한 ‘의도’ 그 자체와 ‘의도’를 지닌 행위자의 불특정성이 현재 국가가 민간행위자에게 감금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는 상황에서 자칫 국가에 대한 논의를 누락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 이들은 처벌의 의도가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정당화된 많은 감옥과 관련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징벌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 또한 학교나 공공주택, 노숙인쉼터, 그룹홈 등은 표면적으로 감금적인 의도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들면서 이러한 공간들 사이의 감금적 연속체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의도’의 불특정성이라는 요소는 감금권력의 확장된 운용을 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도 대신 ‘폭력’의 개념<sup>3)</sup>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 이들은 Moran et al.(2018a)이 감옥이 감금적인 것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감옥이 사회 전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감금적인 것을 개념화하는 것은 공간이 감금국가(the carceral state)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답하기 위하여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표적되고 착취되고 있는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Moran et al.(2018a)이 감금적인 것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이고 경험적이라고 말한 논의에 대해 수감(incar-

3) 이들이 의도가 아닌 폭력의 개념을 제시하는 데에는 북미의 맥락에서 푸코(2020)가 논의하였던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응시의 권력을 획득하는 지식 장치로서의 감금정치가 점차 오히려 가시화된 인종화된 폭력 그 자체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맥락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ceration)의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감금지리학자들이 학술적 논의를 통해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적 지점들을 탈각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모든 감금지리학자들이 감옥철폐주의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금적인 것의 개념화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학계라는 장을 어떻게 인지하며 또한 어떠한 정치적 결정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며 글을 맺는다.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특히 그들이 왜 이 글의 제목을 「감금적인 것을 개념화하는 것의 정치학」이라고 적었는지가 드러난다. 즉, 이들에게 감금적인 것을 이론화하고 명명하는 일은 단순히 학술적인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감옥철폐주의 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실천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Hamlin and Speer(2018)의 글에 대한 Moran et al.(2018b)의 회신은 같은 호에 바로 이어진다. Moran et al.(2018b)는 우선 자신들이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수감(incarceration)이 아닌 감금적인 것(the carceral)이었다고 밝히면서, 감금적인 것과 수감이 완전히 겹쳐질 수 없는 영역임을 밝힌다. 또한 북미 맥락에서 감옥정치 및 감옥 철폐운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배경/양상과 자신들의 논의는 조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음을 (조금은 방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들은 우선 첫 번째로 Hamlin and Speer(2018)이 언급하였던 ‘의도’에 대하여 자신들의 글(2018a)에서 의도는 직접적인 처벌에 의한 손상과 의도되지 않은 손상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때 의도의 불특정성은 단순히 의도가 특정되지 않기에 의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Hamlin and Speer(2018)의 글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국가가 민간에 하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또한 Moran et al.(2018b)은 조밀과 분산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고 말하면서 푸코에게 조밀과 분산은 이분법적이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닌 이미 감금 연속체에 위치 지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이들은 자신

들이 감금적인 것을 통해 숙고하고자 했던 것은 결코 탈정치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여러 지역과 역사,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상황의 맥락들 사이에서 감금적인 것의 지층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북미의 감옥철폐 운동의 실천 및 윤리와 유리되어 있지 않음을 언급한다.

이 세 편의 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학술적·정치적 위상도들은 감금지리를 연구하는 것이 진공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학자들이 스스로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표면하에서 다층적인 지적 계보와 실천적 배경, 지역 등을 통해 창출되는 일종의 ‘우발점’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우발점은 현재진행형으로 형성되고, 또 충돌되면서 형성을 거듭한다.

다음 장에서는 감금지리의 주요한 개념, 즉 경계와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 회로망이라고 하는 시공간적 양태들이 어떻게 감금지리 이론의 위상학적 장들을 구축해 나가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해석하는 시간과 공간, 모빌리티, 경계, 속도, 그물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교차적 시설화와 어떻게 만나고 또 긴장될 수 있을지 더듬어 나가본다.

### **3. 감금지리 논의의 위상학들: 경계(boundary),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coercive/punitive mobility), 회로망(circuitry)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1) 경계: 감금연속체(carceral continuum), 초감금(the transcarceral)**

Turner(2016)는 감금공간의 경계의 구성 및 작동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광의적 의미의 감금공간이 아닌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하여 감옥 경계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저자가 ‘감옥’ 경계라고

명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감옥 경계의 형성 과정을 여타 다른 감금공간의 그것으로 일반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감옥 경계의 이 논의를 풀어나가는 데서 저자는 런던버리의 윈즈워스 내 남성감옥이 Victoria and Albert museum(V&A)과 협업, 수감자들의 삶을 본인이 직접 조각보(patchwork)로 표현하게 한 프로젝트(V&A Webpage, 2018)에 영감을 받아 감옥의 경계를 일종의 조각보로 살펴본다.

여기에서 Turner(2016)는 경계를 곧바로 네트워크나 결절점으로서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거나 단순히 감옥과 감옥 외 사회공간 간 관계를 단순히 ‘흐려짐(blurring)’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감옥과 사회의 안과 밖 그 사이의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관계를 자세히 정립해 나가는 것이 단행본의 목표라고 밝힌다. 그럼으로써 감옥의 경계가 교섭되고 경합되는 지점 자체에 대해 살펴볼 것임을 언급한다.

조각보로 감옥 경계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Turner(2016)는 조각보가 우선 다양한 파트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이때 이 파트들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미지수이다. 어떠한 조각보는 예측 가능한 무늬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조각보의 경우 그 패턴이나 사이즈, 각 파트의 중요성, 색깔 등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조각보를 구성될 수도 있다. 이 각기 다른 크기의 피스들은 특정한 상징과 추억 등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조각보에 강렬함을 남긴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파트들은 보이지 않는 가닥들로 엮여 있다. 실은 각각의 조각들이 가진 날것의 가장자리들을 서로 엮으며 전체를 구성해 간다. 그런데 이때 이 실들로 엮이는 부분들은 단순히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솔기들이 달리면서 때로 그 경계가 서로 만나기도, 엮히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 솔기들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경계간의 융합 및 만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솔기가 잘못 엉키게 되면서 고치거나 혹은 형태를 아예 바꾸는 과정에서 특정 조각, 혹은 조각들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그렇기에 각 조각들의 경계가 실 등으로 엮히고 만들

어져 가는 과정은 또한 동시에 끊임없는 변형과 수리, 잘려나감 등을 동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각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일시적인 고정과 변형을 지속한다.

조각보를 중심으로 감옥의 경계를 개념화해 나간 Turner(2016)의 작업은 각 조각보의 조각들이 모여 특정한 구조와 전체적인 형상이 갖추어진다는 점에서 저자가 감옥과 사회, 더 나아가 감옥들과 사회들 사이의 삶의 경계가 엮어지고, 잘려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보다 안팎 중심의) 어셈블리지적 전체를 상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잘려지고 얽히고, 다시 구축되는 삶의 과정들을 Turner(2013)는 디스토피아와 디아스포라의 합성어인 ‘디스포라(dyspora)’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는 수감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회로 돌아간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 및 안정적인 직업을 획득할 기회에의 지속적인 탈락, 안정적인 지역공동체의 부재 등의 상황에서 감옥 공간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디아스포라를 디스포라로 개념화했다. 이를 통해 Turner(2013)는 이들이 감옥을 ‘좀 덜 바람직한 집’으로 여기는 것에 주목하면서 ‘자유’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사회의 공간에서 감옥을 그리워하게 되는 역설적인 감정과 소속감을 풀어나간다.

그런데 Turner(2013)의 결론은 어찌 보면 조금은 설부르게 이러한 디스포라를 봉합하려는 듯 보인다. 저자는 사회로 돌아온 전 재소자들이 느끼는 디스포라가 이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및 낙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디스포라적 감각이 지속되는 상황이 우려스러우며, 그렇기에 사람 중심의 재정착 프로그램 및 정책을 지원한다면 감옥 ‘안’에서 ‘밖으로’의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고 글을 맺는다.

Turner(2016)가 감옥 경계가 일시적으로 고정되는 것이며 그 경계 사이에서 삶과 관계가 끊임없는 변형과 수리, 잘려나감, 재구축 등이 반복된다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Turner(2013)가 감옥과 사회의 경계 사이에서 형성되는 디스포라적 감정을 해소되어야 하는, 일종의 우려스러운



것으로 그리는 것은 조금은 당혹스럽다. 물론 재정착을 위한 지원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디스포라를 ‘해소’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전 수감자들이 사회로 ‘나간’ 후 디스포라적 감각을 느끼는 것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에 ‘부적응’하여 일시적으로 감옥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나타난 것으로만은 이야기될 수 없다. 오히려 비판장애학에서 감옥 내에서의 친밀감과 돌봄에 기반한 관계에 대해 논의해 온 것을 고려할 때(Ben-Moshe, Champman and Carey, 2014), 감옥에 대한 디스포라적 감각은 감옥 내에서 어떠한 관계와 연대, 연합의 주름들이 형성되어 오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단초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자유사회와 감옥을 대비시키며 이들이 자유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프로그램들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논의를 맺는다.

Turner(2016)가 조각보로 감옥 경계를 이해하고자 한 것과 유사하면 서도 다르게 Moran(2013)은 어빙 고프먼(2018)의 ‘총체적 기관’<sup>4)</sup>이 자유사회와 수용소의 경계를 명확히 나눈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초감금(transcarceral)적 사유를 개념화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저자는 감옥의 방문실을 역치성(liminality)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이때 역치성은 단순히 ‘사이에 있음(betweenness)’를 의미하지 않으며, 변화가능성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 Turner(2016)가 경계하고자 한 ‘흐려짐’을 피해가면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다.

Moran(2013)은 감옥을 방문하는 행위 및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되어가게 하는 일련의 사회적·정치적 관행 및 절차 과정들에 초점

4) 고프먼(2018)은 총체적 기관의 요체를 “다수의 인간적 욕구들을 다룰 때 사람들을 전체로 조직해서 관료적으로 관리하는 방식(그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지 효과적인지 사회적 조직화라고 할 수 있는지와는 무관하다)”(고프먼, 2018: 19)이라고 정의하였다.

을 맞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금적인 것’은 감금 시설 간, 그리고 그 너머의 물질적 공간들 모두와 연관되어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체가 된다. 초감금적 공간 중 하나이자 감옥 내외부를 잇는 일종의 매개 공간인 감옥 방문실에서 수감자는 방문객과 더불어 그가 연계되어 있는 감옥 외부의 삶을 마치 정지비행(hovering)하듯 경험한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Moran(2013)은 역치적 공간으로서 방문실의 공간을 조금은 납작하게 한정 짓는다. Moran(2013)은 방문실에서 수감인이 방문객과의 상호적 관계하에서 느끼는 특정한 감정들이 이후 수감인의 경험과 감각을 재구성하는 정동적 과정으로 발현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동이 실질적인 사회적·정치적 변화, 예를 들면 출소 이후 재범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문실에서의 정동적 경험이 이후 이들의 사회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며, 더욱이 그가 말하는 사회적·정치적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모호하게 착취와 삶의 폭력적 흔적에 대항하는 변화들이라고 말했다.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Moran(2013)의 글은 재소자들이 방문실에서 방문객들과 만나며 발현될 수 있는 감정과 정동의 방향이 언제나 긍정적이거나 재범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실 내 감정과 정동을 곧바로 특정 정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조금은 선부른 결론을 도출한다.

Turner(2013)와 Moran(2013)의 글은 감옥과 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감금 연속체(continuum)적 측면에서 되어가는 수감인의 복합적인 감정과 소속감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데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이 두 글에서 저자들은 전 수감자의 분열적 자아를 다시금 자유사회에 적합한 주체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감옥에서 형성되는 친밀감과 유대, 그리고 우호적인 기억과 이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몸에 체현된 기억과 감정, 정동은 그 개

개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주체 분열의 ‘징후’로, 잊히거나 부정되어야 하는 잔여물이 된다. 더욱이 Turner(2013)가 자유사회와 감옥을 ‘집(home)’으로 이야기하면서 ‘집’을 갈망하는 장소로 설명하는 것은 그동안 여성주의지리학 논의에서 ‘집’에 대한 낭만화를 지양해 오고자 했던 논의들(매시, 2015; 맥도웰, 2010 등)을 포함하여 복미 맥락에서 공공주택 및 커뮤니티케어가 감옥시스템의 구성요소로 기능할 가능성(Brown, 2014; Hamlin, 2020)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데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Schliele(2016)는 Moran(2013)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고프먼(2018)의 총체적 기관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하며 감금공간 경계의 연속성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많은 인문지리학자들이 고프먼의 총체적 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짚으면서, 고프먼이 글에서 자유사회와 수용소를 구분하여 서술한 것은 맞으나 이 구분은 절대적인 게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고프먼의 논의에서 수용소의 경계는 확정적인 것이 아닌, 재소자와 관리자 등의 관계에서 소통과 위계, 낙인, 제1·2차 자아 적응 등을 통해 그 경계가 끊임없이 협상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Schliele(2016)는 실제 감옥의 여성수감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석기간 및 수감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관리 혹은 감시하에서 느끼는 집에 대한 분리 및 애착의 양가적 감정을 포착하면서 감옥과 소위 ‘자유세계’에의 연속체적 측면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Schliele(2016)의 글은 앞선 Turner(2013)와 Moran(2013)의 글에 비해 주체의 분열적 소속감을 통합하려 하기보다는 감금연속체적 측면 그 자체에서 구성되는 주체화 과정에 주목한다.

Schliele(2016)의 글에서 좀 더 나아가 Moran(2014)의 글은 초감금적 공간을 살아가는 몸의 ‘물질적 측면에서 ‘치아’에 주목한다. 그는 러시아 감옥 내 여성 재소자들이 수감기간 중 적절한 치아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이가 아픈 경우 이를 뽑아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러한 수감 생활 내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수감기간 동안의 고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감기간 이후 사회로 돌아간 후에도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한다. 러시아에서 ‘여성범죄자’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군데군데 빠져 있는 치아인데, 전 여성수감인들이 입을 벌리거나 말하거나 웃는 등의 행위에서 빠져 있는 치아는 낙인으로 작동한다. 신체 자체에 새겨진 흔적은 이들이 재소기간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작동함과 동시에 직업을 가지려 하거나 지역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Moran(2014)은 이 여성들이 이러한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임플란트 등을 하는 방식으로 빠진 치아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식, 혹은 말할 필요가 없거나 오래 머물 필요가 없는 일시적 직업들을 선택하는 과정들을 살핀다. Moran(2014)의 글에서 빠진 치아는 수감생활 중 몸과 기억 그 자체에 새겨진 흔적이자 이후 일상생활의 무수한 과정들에서 해당 개개인이 특정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선택 속에서 몸 자체도 재구성해가게 하는 물질적 요소로 작동한다. 그렇기에 수감기간 중 몸과 기억에 체현된 흔적들은 수감생활 후 ‘자유사회’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워지거나 오롯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삶과 ‘살’(육체적 의미뿐 아니라 메트로폴티적 개념에서 주름을 구성해가는 세계관으로서의)을 구성해가는 주요한 요소로 적극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초감금적 사유는 ‘인간’이 시설화의 주요한 주체라는 전제를 뒤 흔들기도 한다. Morin(2016)은 사형/도축, 실험 및 노동에 관한 세 가지 현장과 기관을 살펴봄을 통해 감옥의 수감자와 동물을 병치하고, 더 나아가 감옥과 농업, 의료-산업체 간의 깊은 유사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해당 감금공간의 지리, 위치, 설계 및 배치, 그리고 그 안에서 세심하게 조직되고 규제되는 움직임을 살펴본다. 예컨대 감금공간 내 일상적 노동에 배치되는 신체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긴장감과 폭력성, 그리고

비인간 존재 및 인종화된 수감자 인구 모두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획적·목적론적 사육(breeding) 등이다. 여기에서 사육은 인간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구조하에서 ‘과잉’으로 여겨지는 인종화된 신체(특히 흑인 인구에 대한)를 감옥산업단지에 돌려버리는 방식으로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비인간의 경우 말 그대로 사육을 통해 그들의 생명과 재생산을 착취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Morin(2016)은 감금된 비/인간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생산하는 법적 및 정치적 맥락을 논의한다. 또한 Morin(2020)은 미국 역사에서 축우농장을 분석하면서 농촌 감옥군도(agricultural carceral archipelagoes)를 분석하고, 이 감옥군도가 현재의 감옥시스템과 연계되는 지점들을 논의해 나간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저자들은 감금연속체와 초감금적 공간의 형성 및 작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해당 경계들의 불규칙성과 역치성의 ‘사이’를 구체적인 공간에서 살펴보면서 시설 안팎의 ‘치명적 공생(Wacquant, 2001)을 추적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수감인 개개인의 몸과 기억에 체현된 궤적들 및 다층적인 소속감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다. 디스포라적 소속감과 애착, 빠져버린 치아는 재활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 및 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해 ‘치유’하고 지워야 할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양분되지 않는 기억과 감정, 몸의 물질적 ‘증거’들을 그들의 개인적 삶과 더불어 감금시스템의 주름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파악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인간주의를 넘어서는 시설정치 주체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때, ‘시설’의 범주는 또한 어떻게 변주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질문들은 다음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에서도 이어진다.

## 2)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coercive/punitive mobility): 시간, 움직임, 속도에 대한 감각

이 절에서는 특히 모빌리티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움직임, 반복, 시간, 속도, 전송과 전환 등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감각에 기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감금시스템의 주체와 물질 등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본다.

우선 첫 번째로 Gill(2013)은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동안 인문지리의 논의에서 모빌리티와 자유의 관계가 맺어져 왔던 오랜 인식론적 지층에 대해 반문한다. 그는 최근 서구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수감인구가 증대되는 경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회안보’의 일환으로 ‘위험한’ 인구군에 대한 군사화 및 감시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 감시는 주로 이들의 모빌리티를 제한하고 특정한 장소에 메이게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Gill(2013)은 특정한 장소에의 구금과 정체(stasis)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모빌리티 역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우선 모든 모빌리티가 자유를 증대하는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모빌리티와 자유의 불안정한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는 Deleuze and Guattari(1986), Bauman(1993; 2000) 등이 이동을 자유, 혹은 탈주에의 가능성과 연관시킨 지점, Urry(2007)가 모빌리티를 일종의 ‘권리’로 파악한 점 등을 들어 기존 논의들에서 모빌리티 혹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체가 향유하는 자유, 권리로 자주 인식되어 왔으며 모빌리티의 반대가 정체로 인지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으로 이동과 자유가 연동될 수 있는 계층은 주로 고학력의 중산층 노동자 이상이었다는 점을 짚으면서 실질적으로 특정 계층과 인구군에게 이동은 권리가 아닌 통제와 처벌적 의미를 띠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적 의미의 모빌리티 생산이 어떻게 감금공간에 규율적 권력을 배태하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강제적 모빌리티에 대해서 그는 이미 2009년, 영국의 난민수용시설의 사례를 통해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모빌리티가 어떻게 규율 권력의 장치를 견고하게 하고, 유순한 몸을 재/생산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Gill, 2009). 이때 특징적인 것은 강제적 모빌리티를 통한 규율 권력의 구성은 직접적인 완력이나 처벌을 통해 이들을 순응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망명인과 난민이 해당 기관의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할 시, 이들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버림으로써 기존 개인들이 해당 국가에서 망명인, 난민 심사 등을 위해 지역 사회의 NGO 등과 형성하고 있던 실질적·잠재적 유대와 망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순응하는 동시에 규율에 자발적으로 규율을 따르는 몸을 형성해 낸다.

난민수용시설에서의 강제적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는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한(혹은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빌리티와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 이 두 갈래의 모빌리티가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Gill(2009)의 논의처럼 난민은 ‘자유’를 찾아 국가 스케일의 이동을 감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난민자격을 신청하는 국가의 국경에 도착한 순간부터 난민신청자는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센터와 센터를 잇는 강제적 모빌리티에 순응해야 한다. 이처럼 자유를 추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빌리티에의 획득은 언제나 강제적 모빌리티의 추동 과정에 모호하게 위치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난민의 모빌리티는 이동에 얽힌 자유와 감금의 역학을 드러낸다.

Gill(2009)의 논의와 비슷한 측면에서 Disney(2017)는 러시아의 장애아동을 위한 고아원의 사례를 통해 강제적/징벌적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Disney(2017)는 그동안 자주 아동의 건강과 웰빙, 발달을 위해 많은 움직임과 모빌리티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로 이뤄져 왔으나 아동의 이동이 곧 ‘자유’, 혹은 ‘진보’와 연계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저자는 고아아동이라는 위치성을 통해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주되

는지 분석한다. 그 예로 고아원에 이송되는 과정부터 고아원 내에서 분기별, 혹은 프로그램 별로 ‘정신/육체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기관들로 이동해야 하는 것, 혹은 고아원 내 지침을 어겼거나 혹은 너무 ‘부산스러워’ 관리가 필요할 경우, 특정한 공간으로 이동하여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sit still) 등의 방식을 통해 이들의 모빌리티를 제한, 혹은 증대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때 장애아동을 위한 고아원에서 이러한 강제적 모빌리티가 작동하는 그 중심에는 차별적인 성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 ‘돌봄’에 대한 관리인들의 태도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음을 밝힌다.

Brooks and Best(2021)는 고정과 흐름(fixes and flows)의 측면에서 감옥을 중심으로 한 강제적 모빌리티를 살핀다. 특히 이들은 감금시스템의 모빌리티 및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밀과 분산의 과정을 살핀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이러한 흐름과 고정을 일종의 물류업(logistics)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물류업 시스템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물건들이 이동하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눈금을 매기며 계획을 세우고 조정해 나간다. 물류업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노예무역과 제국주의 시기의 전쟁 등에서 대규모의 사람과 물건을 흐르게 하는 일종의 유동적(fluid) 움직임으로 이해되었다. 이때 이 물류업은 이데올로기적이자 기술적·그리고 물질적(physical) 시스템으로, 적합한 지침에 따라 물들(things)을 속아내고, 분류하고, 선적하고, 나른다. 이 과정에는 노동과 수송 기술, 법적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물류를 ‘받고’ 소비할 지점 등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적시에 이 물류들이 생산되고, 이동되고,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적시성이 확보될 때, 물류 시스템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는 게 가능해진다. 저자들은 물류 시스템을 통해 현 감금국가가 사람과 물건의 이동 및 순환을 통해 구축하는 감금시스템을 분석한다. 이들은 감금기관 내 물건과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선적되고 운송되는 체계가 형성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각각의 개개인에게 기약 없는 기다림 혹은 예상치 못한 이동이 강제됨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감자들의 물질적·감정적·관계적 세계가 특정한 장소에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세계를 부서지기 쉽게 한다고 말한다.

Gill(2009, 2020), Disney(2017), 그리고 Brooks and Best(2021)의 논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강제적 이동을 통한 규율권력의 작동이 공간의 이동과 더불어 (아래에 기술할 바와 같이) 시간의 기계적 흐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빌리티가 감옥군도들을 단순히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옥군도 ‘사이’에 규율권력을 잇는 시간적·공간적 기술이 된다는 점에서 푸코가 논의했던 규율권력이 특정한 양태로 구축 및 체현되는 시공간적 장치들을 끌어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들의 강제적 모빌리티 논의에서 ‘ 옮겨지는 ’ 신체/주체들에 대한 논의는 푸코의 순응하는 신체(docile body)에의 논의에서 그다지 나아가고 있지 못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Schliele(2017)는 감금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의 생산이 단순히 처벌만을 위함이거나 혹은 수감자들을 일률적인 방향으로 순응시키는 것만이 아니며, 강제적 모빌리티에의 생산 그 자체에서 끊임없이 수감자들 간, 그리고 수감자와 관리자 등과의 관계에서 규율권력의 실행 과정을 강화 및 약화시키는 역학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 속에서 자아(self)의 지속적인 형성 및 조정 과정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Schliele(2017)는 고프먼(2018)의 공공 기관의 지하생활<sup>5)</sup>

---

5) 고프먼(2018)은 『수용소』의 제 3장에서 「공공기관의 지하생활: 정신병원 내 생존법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목의 ‘생존법’이라는 말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챕터에서 그가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폐쇄적 기관 내 조직구성원들의 다양한 생존양식들이다. 고프먼은 조직구성원들이 사회적 결속 및 규제와 관련한 계약하에서 어떻게 때로는 공식적인 방식과 규칙에 부합하여 ‘정상적’인 구성원이 되는지, 그리고 때로는 ‘반-공

관련 내용에서 서술되는 2차 적응(second adjustments) 개념을 통해 감금 기관 속에서 수감인들의 자아가 2차 적응되는 경합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사물의 모빌리티다. 저자는 사물을 ‘부유물(floaters)’로 칭하면서 사물기반의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을 전개한다. 예를 들어 수감자들이 감금기관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부터 반입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사물들의 구분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구분하에서 사물들의 불/합법적인 사물의 반입, 물건을 소유하고 유통하는 수감자들 간 관계의 성립 및 갈등, 불법적 물건의 소유로 인한 독방 수감 등이 이루어진다. Schliele(2017)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 수감자들 간의 관계 및 위계, 수감자의 자아 적응 과정은 단순히 규율 권력의 제한적 지시에 순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부유하고 흐르는 사물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시설 안의 제한되고 흐르는 사물들의 움직임과 이동은 단순히 감금레짐의 줄기들을 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레짐들의 ‘사이’에서 수감자들의 확장된 자아로 얽히고 작동한다. 그렇기에 Schliele(2017)는 사물기반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사물들의 모빌리티를 파악하는 것이 감금공간 내 젠더와 섹슈얼리티 규범 및 실천, 그리고 저항의 단초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한다고 주장한다.

Schliele(2017)의 논의는 Gill(2009, 2020)과 Disney(2017)의 논의와 비교할 때, 우선 규율권력의 형성 과정을 단선적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권력의 관계’들이 경합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비인간적 측면이

---

식적(semi-official)’인 방식으로 “승인되지 않은 수단을 채택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고프먼, 2018: 224) 의무를 회피하는지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전자를 제 1차 적응, 후자를 제 2차 적응이라 하였으며, 특히 제 2차 적응에 관한 관행들이 개별적, 혹은 집합적으로 모이면 ‘기관의 지하생활’이 구성됨을 논하였다. “사회적 시설의 지하생활은 도시의 지하세계 같은 것”(고프먼, 2018: 235)이라는 그의 말에서도 지하세계가 공식세계와 관계 맺으면서도 비껴 있는 관행과 임시변통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어떻게 인간의 자아 적응에 확장적인 요소로 얽혀 있는지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사물의 이동과 젠더적 수행, 섹슈얼리티의 연계를 결론 부분에서 짧게 가능성으로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는다. 더불어 논의를 전개하는 방법론으로 사물의 물질성을 강조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 글에서 저자가 이 사물의 물질성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자아(self)’라는 점에서 저자가 물질과 자아 사이의 다공적인 공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역시도 의문이 든다.

한편 Moran(2012)은 Gill(2020) 및 Brooks and Best(2021)가 강제적 모빌리티를 간접적인 규율권력의 작동을 촉발하는 특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기계적 움직임으로 본 것과는 다른 입장에서 감금지리에서 시공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감옥에서 시간은 기계적 시간, 즉 감옥 내 사람이나 물류 등이 이동되거나 개인이 주어진 일정하에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시계, 달력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주로 여겨지며, 이러한 ‘기계적 시간’의 관점하에서 감금공간의 모빌리티 논의가 진행된 흐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인문지리에서 시간을 객관화하여 해석하던 것에서 살아 있는, 경험적인 관계적 형태로 논의하는 흐름을 언급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서로 분리되기 어려운 ‘끈적끈적한(sticky)’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Moran(2012)은 시간을 마치 공간을 스쳐 지나가는 독립적인 변수로 파악한다면 감금공간에 관련한 이동 및 움직임은 시-공간 고정(space-time fix)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끈적끈적한 시공간적 측면을 논의함으로써 개인이 수감 전, 수감 중, 그리고 수감 후에도 시간과 공간을 체험하고 이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감옥 내에서의 시공간(TimeSpace)의 구축에 대해 탐구한다. 그는 특히 지금(now)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주목한다. 이 현재의 시간은 하나의 점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계속하여 스쳐 지나가

고 있는 순간들이 축적되는 과정 속에서 그 축적된 순간들이 기억과 경험 속에서 되어가는(becoming) 과정을 통해 현재의 확장으로 기능하고, 계승되며 재조합되는 실선과 점선의 유기적 덧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확장된 현재는 그 현재를 경험하는 개인들의 신체성과 더불어 얽혀 있다.

Moran(2012)은 이 ‘지금’이라는 확장된 현재가 ‘시계’를 통해 구성되는 기계적 시간과 어떻게 얽히면서 개인의 경험화된 감옥 공간을 구성하는지 살핀다. 그는 특히나 감옥공간에서 기계적 시간과 ‘지금’이라는 확장된 현재 사이의 정체적 인식(the perception of stasis)을 주요하게 분석한다. 한편으로 감옥은 기계적 시간으로 기상시간, 식사시간, 노동시간, 면회시간 등등이 직선적으로 흘러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수감자들에게 특정 시간은 너무도 길게 흘러간다. 예를 들어 어떤 수감자의 경우 면회객이 방문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후 방문시간까지 시간이 너무도 가지 않아 그 정체되는 듯한 시간을 흘러보내기 위해 계속해서 잠을 청하기도 한다. 또한 감옥이라고 하는, ‘자유사회’의 사회적 단계가 통용되지 않는 공간에서의 시간은 나이 들에 대한 정체된 감각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수감자들은 감옥 내 시간에서 스스로가 늙었다고 여기지 않지만 감옥을 나가는 순간 바로 특정 사회적 단계로 자신의 몸이 포착되면서 물질과 육체로서의 나의 몸이 늙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을 분석하면서 저자는 감옥 내 시공간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흘러가거나 죽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들의 감옥 내외 개개인의 삶과 나이 들, 육체에의 감각들과 더불어 끈적하게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Gill(2009, 2020), Disney(2017), Schliele(2017), 그리고 Moran(2012)의 글은 (준)감옥공간에 배태된 시간과 속도, 움직임의 감각이 어떻게 일종의 예외상태(아감벤, 2009)를 구성하는 규율적·경험적 장치들로 작동하는지 포착한다. Gill(2009)과 Disney(2017)는 특히 개개인의 몸을 강제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감옥 내 지침과 규율을 스스로 습득하게 하고 자발

적으로 순응하게 하는 과정을, Schliele(2017)는 감옥 공간 내에서 ‘사물’이 일종의 ‘부유물’로서 수감자들과 관리인, 수감자들 간 관계에서 흐르는 이동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자아가 감금공간에서 재조정되고 협상되는 과정을, Moran(2012)은 감옥공간 안팎을 오가며 축적되는 수감자들의 시간에 대한 ‘정체’에의 감각을 통해 감금공간을 구성하는 장치들이 시공간의 변주와 연동되는 과정을 포착한다. 그러나 이 글들은 시간과 이동, 움직임, 속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가 난다. 특히 Gill(2009, 2020)이 감금공간 내에서의 기계적 시간이 규율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반면, Moran(2012)은 공간 내 시간을 보다 정동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한다. 이 과정 속에서 전자는 ‘몸’을 규율되고 순응되는 사회적 신체로 살펴보는 반면 후자는 몸의 신체성에 집중한다.

다음 절에서는 모빌리티 내 속도와 시간, 움직임에 대한 개념화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감금공간 정치의 총체적 상상, 혹은 종합적(synthesis) 상상인 그물망(le réseau)적 사고가 감금회로망(carceral circuitry)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지점들을 살펴본다.

### 3) 감금회로망(carceral circuitry): 순환(circuit)과 그물망(le réseau)에의 감각

감금회로망에 대한 논의는 앞의 두 논의에 비하여 인문지리학에서 더욱 최근에 시작된 논의로, Gill, Conlon, Moran and Burrridge(2018)에서 본격적으로 개념화되었다. 이들은 감금회로망이라는 보다 그물망적 측면에서 감금연속체와 감금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저자들은 2016년 BBC 뉴스(BBC, 2016)가 마약이나 휴대폰 등을 감옥 안으로 밀반입하기 위해 드론을 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으로 서론을 시작하면서, 드론의 ‘침투’는 감금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감금 시설 ‘간’ 안팎의 경계를 파악하는 아니라, 메타적 관점에서

시설들 간의 ‘위(supra)’, 아래(sub-), 상호간(inter-), 안과 밖(intra and extra-)의 차원에서 연속화되는 과정들을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메타적 관점에서 시설들 간의 감금적 역학을 살펴보기 위하여 감금회로망을 개념화하겠다고 밝힌다.

특히 이들은 David Harvey(1982; 1985) 등에 의해 자본주의가 탈취에 의한 축적을 바탕으로 한 공간적 조정(spatial fixes)을 통해 정치경제적 위기를 지리학적 해소하고자 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감금시스템을 횡단하고 구성하는 순환을 살펴보는 이론화를 시도한다. 이들은 맑시스트적 관점의 순환 논의가 자본주의와 불평등, 착취와 배제에의 구조적 역학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면서 기관들 간의 메타적 순환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맑시스트적 접근을 취한다고 밝힌다. 즉, 현재의 대규모 수감의 맥락에서 자본주의가 연계되어 있는 구체적인 공간적 회로들의 분석 및 이러한 회로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혀 궁극적으로 대항적인 그물망의 지도를 그려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특히 사람(people), 사물(objects), 그리고 집행(practices)의 순환에 중점을 둔다. 우선 사람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수감인의 수송 (inmate shuffle)에의 순환 및 그 순환에 직간접적으로 얽힌 순환의 비용, 법의 집행, 이동 중 발생하는 비공식적 처벌과 폭력의 순환에 초점을 맞춘다. 더 나아가 수감자뿐 아니라 교도관 및 감옥을 둘러싼 법(의)학자 등 엘리트 인사들, 교육자 등이 이러한 순환의 과정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순환의 주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메타 감금시설 사이에서 순환의 강도 및 속도를 증감시키기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사물의 순환은 수감자 간, 혹은 수감자와 연계되는 다층적인 관계들 아래서 순환되는 사물들을 포괄하는데, 이때 사물들은 작은 종이 메모에서부터 음식, 세탁물, 마약, 선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저

자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사물들의 교환 및 순환을 통해 생산과 소비, 노동에 대한 확장된 순환을 포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러한 물질로서의 사물이 창출하는 순환의 고리들을 통해 감금공간 내 특정한 질병, 폭동, 수감생활의 ‘노하우’, 특정한 수감인들의 태도와 언어, 관계를 촉발하는지 역시도 포착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집행의 경우, 이들은 특히 정책적 측면의 실질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춘다(이러한 까닭에서 practices를 실천이 아닌 집행으로 번역하였다). 이들은 특히 북미 맥락에서 감옥과 이주민 수용소의 모델 및 방향을 정하고 집행하는 정책의 순환이 국내외로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북미의 최고보안교도소 모델(supermax prison model)의 국제적 분산을 통해 살펴본다(그 일례로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로 최고보안교도소가 분산되는 과정 등이 있다). 이러한 감금시설과 관련된 정책의 국내외 순환을 통해 저자들은 어떻게 감금공간의 장치들이 불균등한 공간정치를 재구축되는지 포착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기반으로 이들은 감금회로망의 6가지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첫째, 순환은 주로 여러 장소들을 돌며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오는 규칙적인 코스이다. 이 첫 번째 성격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recurrence)이다. 예를 들어, 북미에서 특히 흑인남성의 재수감에 대해 ‘회전문(Revolving door)’라는 고유명사가 생길 정도로 인종적 낙인에 기반한 처벌의 과정은 반복적이다. 이러한 처벌의 반복은 개인의 몸뿐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 지역에까지 확장되며 지역 자체에 감금적 경관을 형성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감옥 내 사물과 집행의 반복적 이동 과정은 감옥 관련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획득 및 예측하도록 하기도 한다. 둘째, 순환은 물들이 지나가고 죽는 루트이다. 특히 저자들은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잉여물품들을 특정 창고에 쌓아두며 순환시켰던 것처럼 감금공간 내 잉여로의 인구가 쌓여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과 죽음 등으로 순환된다고 말한다. 셋째, 순환은 더 큰 감금 시스템의 조립품(component)이다. 감금시스템을 컴퓨터로 이해한다면 순환은

이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조립품들이다. 저자들은 경제적·사회적 위기에서 어떻게 이 조립체들이 얽히며 특정한 방식(예를 들어 대규모 수감을 통해 시장에서 잉여 인구를 제거하는 식 등의)으로 순환의 방식을 구성하는지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넷째, 한번 순환에 속하게 되면 그 움직임은 강제적이다. 이들은 감금시스템이 고정된 공간이라는 인식과 달리 현재 감금시스템에서 이동은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동을 지시하거나 무한정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권한에의 집행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규율 권력은 감금공간 내 이동의 영속적인 고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다섯째, 순환은 감금적 집행의 처벌적 성격을 숨기거나 부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앞서 Gill(2009)의 논의에서도 드러났듯 현 감금시스템은 직접적인 형벌의 집행보다 이동에의 무기한 연기 혹은 수감자가 원치 않는 잦은 이동을 통하여 수감자들에게 간접적인 처벌을 행한다. 그리고 이는 대중에게 감금시스템이 가진 처벌적인 성격을 가릴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순환은 지도화할 수 있다. 이는 언뜻 보면 앞에서 논의하였던 ‘보이지 않는’ 순환의 성격과 대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순환을 지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순환의 고리들을 객관적, 혹은 완전히 그려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짚어보았던 반복과 정체, 소멸과 죽음의 과정들을 추적함으로써 감금회로망 내에서 자본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강박이 어떻게 추동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순환의 여섯 가지 성격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저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감금회로에 대항적인 지도(counter-mapping)를 그려나가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감금회로망이 구성되고 얽혀 있는 밀도의 요소들을 어떻게 파악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회로의 최경합지대(edges)와 변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관들이 이러한 순환의 루트와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지, 특히 어떠한 계약자와 투자자가 이러한 감금시스템으로부터 이득을 얻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금



시스템의 다이내믹은 어떠한 리듬과 빈도, 가속 속에서 변주되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감금회로망 논의와 비슷하게 Follis(2015)는 영국의 감금기관이 어떻게 수감인의 움직임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 어떻게 규율권력의 작동을 실행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Follis(2015)는 각 수감인이 구금되어 있는 기관의 종류와 해당 기간의 과잉 정도, 기관 내 사건들 및 위험요소들(반란, 폭행 등)에 의해 ‘그’[Follis는 수감인을 ‘그(his)’라고 표현한다]가 이동되는 정도 및 범주가 조정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Follis(2015)는 이러한 이동의 조정 과정 내 ‘밀고 당기는(push and pull)’ 메커니즘을 통해 감금정치의 순환적 힘의 창출을 분석한다. 즉 이동의 과정은 단순히 다른 기관으로 옮겨간다는 것뿐 아니라 옮겨가는 기관의 스케일 및 통제의 강도가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을 통한 처벌과 보상의 역학 역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을 통한 순환의 과정은 구금기간 중 재소자의 가석방 기간 중의 이동 및 감시, 그리고 수감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Follis(2015)는 이동을 통한 권력의 행사가 수감 후에도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지속됨을 논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금회로망을 통해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감금시스템이 어떻게 이동 및 고정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감금시스템을 재조립해 나가는지 논한다. 그리고 순환을 만드는 장치들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정 및 집행하는 구체적인 법, 지침, 행위자 등의 물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저자들이 개념화하는 감금‘망’적 상상은 아감벤(2010)의 장치에 기반한 그물망 논의와 만나면서도 또 경합한다.

아감벤(2010)은 푸코가 장치를 일종의 이질적 요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그물망으로 개념화했던 것을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장치의 정의를 “생명체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규정, 차단, 주조, 제

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아감벤, 2010: 33)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아감벤이 장치에 대해 말할 때, 생명체 그 자체가 아닌 생명체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들을 장치라고 명명했다는 점이다. 즉 기본적으로 아감벤은 장치를 생명체와는 별도의 것, 주로 ‘법(률)’에의 작동을 통한 집합적 망으로 파악한다. 이는 아감벤(2009)이 『예외상태』에서 궁극적으로 해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자 또한 그 도구가 법(률)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그다지 놀랍지 않다. 아감벤은 법(률)의 논의하에서 장치들과 생명들을 다른 향으로 분리하며, 생명체와 장치들이 맺는 관계의 결과로 제3의 항인 주체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아감벤에게 이 주체화 과정은 생명체로부터의 “분열 같은 것을 구성한다”(아감벤, 2010: 36).

생명체와 주체를 구분하여 법(률) 중심의 장치와 그물망을 사유했던 아감벤과 달리 앞에서 논의한 감금지리 학자들은 담론적인 층위뿐 아니라 수감자의 몸과 같은 생명과 물질 그 자체도 자체로 ‘장치’로 보았다는 점에서(순환에서 사람들과 사물들 자체를 대상으로 본 것 등) 아감벤이 보았던 담론 중심의 그물망 논의와 구별된다. 이는 법(률)을 중심으로 한 주권담론을 통해 예외상태를 살펴봤던 아감벤의 시각을 넘어서서 질병, 감염, 트럭, 전기, 교육, 노동 등 구체적인 물들(things) 및 행위(자)가 일종의 ‘장치’로서 감금시스템의 유기적 순환을 구축하는지 살핀다는 점에서 한층 예외상태의 시공간적 분석을 깊게 한다. 더 나아가 수감자의 몸 그 자체도 이 시스템에서 ‘벌거벗은 생명’으로 수동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유지, 재생산하는 장치로 절합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논의가 아감벤의 논의에 비해 살과 폭력에의 물질적 회로망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조금 모순되게도) 여전히 그들에게 주요한 ‘사람’인 신체는 착취적 자본주의 생산과 순환에 엉켜 있는 무성(혹은 남성)의 노동자이자 수감자로 수렴된다. 이는 감금회로망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맑시스트 지리학의 개념과 언어를 우선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맑시스트 지리학에서 젠더화·성애화된 몸의 물질성에 집중하지 않은 측면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것을 고려할 때 일견 그 모순이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Gill et al.(2018)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기존 인문지리학에서 맑시스트 지리학과 여성주의 지리학 내 있어왔던 긴장이 업데이트된 흔적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Gill et al.(2018) 등에 의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감금회로망의 논의는 그 회로망의 종합적 조망을 통해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대항적 지도 만들기’가 어떠한 주체의 욕망과 정치적 기획/윤리적 실천에 기대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의 논의로는 자칫 젠더화, 성애화된 존재와 관계, 실천을 지우거나 주변화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또한 Gill et al.(2018)은 맑시스트적 관점을 취하겠다고 말하면서 인문지리학에서 논의되었던 ANT(Actor-Network Theory)나 어셈블리지적 사유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new mobility paradigm)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들이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맑시스트 전통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급진적인 유산(radical heritage)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이론들이 층화된 존재론(layered ontologies)과 매크로 이론에 ‘반감(antipathy)’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저자들이 현시대의 감금환경(milieu)의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감금공간의 저명한 학자들(Sykes, 1958; Foucault, 1977; Wacquat, 2002; Peck, 2003)의 논의와 더불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와 같은 깊은 구조적/구조화하는 힘들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Gill et al, 2018: 185)을 어렵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ANT를 비롯한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맑시즘적 공간론이 지닌 저항의 가능성을 담지하지 않고 있고, 구조적, 혹은 구조화하는

힘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맑시스트적 순환 논의를 택한다는 Gill et al.(2018)의 주장은 ‘구조’의 의미, ‘저항’의 의미, 주체, 그리고 급진성의 방향 및 의미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일견 이들에게 마치 이미 (계급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 구조와 저항의 의미,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행하는 주체가 있는 듯이 보이게 한다. 더욱이 현재 이들의 감금 회로망의 개념에서는 [물론 Gill et al.(2018)의 저자들이 감금회로망을 살펴보는 데에 ‘사물’을 넣으면서 비인간화의 영역까지 포괄하고자 하는 흔적이 있기는 하나] ‘저항’, 핵심적 권력, 죽일 수 있음(killability) 등의 주체화된 존재를 인간화 (특히 남성/무성적 수감자에 초점을 맞추어)하여 상정하고 있다. Morin(2016)이 동물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논의한 것을 고려할 때, Gill et al.(2018)의 입장은 자칫 이들이 의미화하는 저항과 구조의 핵심 주체 외의 물들을 통해 구성되는 구조와 저항의 역학을 주변화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나 해러웨이(2019)가 집적 회로 속의 여성들을 논하며 살펴봤던 ‘사이보그’적 몸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감금회로망의 논의에서 저항과 주체, 물질성 등의 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해러웨이(2019)는 가정과 학교, 병원 등에서 형성되는 기계(장치라는 의미와 더불어 실제 기술을 포함한 기계)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 관행 및 생산자와 생산물, 생명체와 무생물, 주체와 객체 등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몸을 사이보그로 논의한다.

해러웨이(2019)의 사이보그적 상상은 아감벤이 생명체와 주체를 분리하며 “현실적인 정체성(노동운동, 부르주아지 등)”(아감벤, 2010: 44)의 정치가 쇠퇴됨을 자못 우려스럽게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주체에의 상을 제시한다. 즉, 아감벤의 논의에서처럼 주체화되기 이전의 어떤 순수한 생명체가 있다는 데에서 야기되는 환상, 즉 “(남성)인간의 등장 이전, 옛날 옛적의 총체성”(해러웨이, 2019: 72)을 해러웨이는 거부한다. 이러한 거부는 (아감벤도 여전히 일정부분 동참하고 있는) 서구 전통의 이원론적 사유, 즉 “자

아/타자, 정신/육체, 문화/자연, 남성/여성, 문명/원시, 실재/외양, 전체/부분, 행위자/자원, 제작자/생산물, 능동/수동, 옴/그림, 진실/환상, 총체/부분, 신/인간 같은 것”(해러웨이, 2019: 77)에 기반한 주체됨의 환상을 경계하는 것이자 “타자와 함께 종말의 변증법에 들어가게 되”(해러웨이, 2019: 77)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분법적 변증법의 나선적 춤에서 벗어나 “페미니스트 방언의 상상력”(해러웨이, 2019: 86), 즉 “기계, 정체성, 범주, 관계, 우주 설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파괴하는 언어”(해러웨이, 2019: 86)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러웨이는 다양한 기술과 하이테크 문화의 회로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서 주체와 객체, 정신과 육체를 엄격히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객체’로 사유되었던 물질들이 단순히 인간을 객체화 혹은 억압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사이보그’라는 개념에서도 드러나듯 우리의 몸은 사회적 신체/주체와 단일한 정체성으로 수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이보그’로서의 비/인간과 유기체로서의 생명체들을 사유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러웨이적 시각에서 볼 때, 현 감금회로망의 논의에서 어셈블리지 등을 통한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더불어 사유하는 것은 Gill et al.(2018)이 궁극적으로 밝히고 또 대항해 나가고자 하는 감금시스템의 구조와 구조화하는 ‘힘들’의 의미 및 대항의 주체, 대항 자체의 의미 등을 더욱 면밀하고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오며

앞서 나는 감금지리 내 경계, 이동, 그리고 순환에의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 이론들의 위상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준)감금적 시설들을 창출해 내는 감옥군도와 연속체를 살펴보는 역학이 단순히 감금의 정도를

기술적으로 나누고 분류하거나 혹은 닫힌 의미로의 감금계를 상상하며 전체화 및 총체화에 간히는 회의적인 종말을 그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감금지리의 언어들은 감금공간에 비가시적으로 겹겹이 쌓이고 응축된 폭력의 위상학(한병철, 2020)을 걷어내고 해방의 위상학을 그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금시스템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더 나아가 해방의 위상학을 그리는 과정은 각각의 저자들이 딛고 서 있는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학술적 지형과 결부되어 차이가 드러난다. 특히 감금지리를 구성하고 구축하는 주체에 대한 논의, 몸의 물질성, 거시와 미시의 시각, 속도와 시간애의 감각, 저항의 의미 등에서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논의의 위상도를 통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설화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 간 경계와 강제적/차별적 이동, 순환의 망들은 어떻게 새겨지고 있으며, 이때 감금지리의 언어는 이러한 시설정치의 역학을 어떻게 창발적으로 해석하고 해체해 가는 데 절합될 수 있을까? 감금지리와 시설화 논의의 절합을 위해 나는 ‘화(化)’에 주목한다. ‘화(化)’는 그 어원 자체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죽다와 태어나다의 의미에서 변천하다, 바뀌다의 의미를 포괄하는 ‘화’의 과정을 시설의 ‘끈적끈적한’ 시공간 속에서 주목할 때, 우리는 감금지리의 이론적 함의들을 하나의 잘 다듬어진 지적 논의로 ‘배우’는 것보다 하나의 기계이자 장치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공간 내 다양한 위상학을 그리고, 덧대며 그려나가며 시설 간 교차성에 대해 탐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감금지리의 언어는 한국에서의 시설화 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설과 시설적인 것, 시설화, 시설생활에 대한 감각을 보다 예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경계 논의를 통해 시설 안팎의 물질성, 주체/객체, 비인간 존재를 고찰하고 시설의 시공간을 입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또한 강제적 모빌리티와 감금회로망의 순환 논의는 복지시설과 형법시설 사

이 어떠한 사물과 몸들, 법적/제도적 집행의 이동이 흐르고 있는지, 주거와 노동, 재생산 이슈 등에 얽혀 우리의 일상공간과 감정, 사유에 아로 새겨져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 비인간과 비도시는 어떻게 도시 내에서의 감옥군도와 더불어 감금 장치들이 배치되고 있는지 등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감금지리의 언어들은 이러한 감금회로에 기반한 기계들을 해체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세계와 이론화를 만나야 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다잡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금지리의 위상학들에서 ‘튀어오르는’ 언어와 사유들이 한국사회에서 추동되는 교차적 탈시설화의 사유와 조우하며 시설화 자체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저항과 윤리, 해방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대항적 지도를 그릴 대항적 장치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이때 저항과 해방은 장애와 손상된(혹은 그렇다고 여겨진) 몸에 끊임없이 명령되었던 온전한 치유와 재활을 통한 부활을 향하는 방향이 아닌 재생(regeneration)을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해러웨이, 2019). 해러웨이는 재생(regeneration)을 다리를 잃은 도마뱀에 비유하면서 “다리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다쳤던 부위에 다리가 두 개 돌아나는 등, 기묘한 해부학적 구조가 생겨날 가능성이 늘 있다. 다시 자란 다리는 괴물 같고 덧나 있으며 강력할 수 있다”(해러웨이, 2019: 85)라고 논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부활이 아닌 재생을 요구”(해러웨이, 2019: 85)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시설의 교차성 논의는 ‘깊은 상처’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상처를 입은 그 지점에서의 강렬함에 대한 이야기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이야기들과 더불어 해방의 나선을 추동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2018년 *Progress in Human Geography*의 지면에서 튀어 올랐던 작은 ‘사건’으로 되돌아가 궁리해 본다. 한국사회에서 시설화를 논의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윤리적·물리적 사유와 행동을

위함이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사유와 행동을 위해 어떠한 트리블릭 존재, 생명과 친족이 되어 해방적 공간의 위상학을 그려가야 할 것인가?

원고접수일: 2021.08.18

심사완료일: 2021.09.06

게재확정일: 2021.09.13

최종원고접수일: 2021.09.16



Abstract

**Carceral Geography as Topologies of Boundary, Mobility, and Circuitry:  
A Critical Lens for the Intersectional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Hyun-Chul Kim

Feminist activists and scholars have recently considered the intersectional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politics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gap of research on spatial politic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various human geography fields of South Korea. In this context, I critically review the concepts of carceral geography derived from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to expand the intersectional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For this, I intend to view theories and concepts of carceral geography as multiple topologies, not organized and neatly sorted 'knowledge'. The first part examines these topologies by analyzing the debates among three journal articles on the meaning of the carceral published i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in 2018. I interpret these debates as small événement showing the multiple intellectual and political topologies among carceral geographers. The second part investigates topologies of carceral boundary, coercive/punitive mobility, and carceral circuitry. In conclusion, I seek to intertwine topologies of carceral geography and the intersectional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discussed in South Korea.

**Keywords:** carceral geography, coercive mobility, carceral circuitry, intersectionality of institutionalization, feminist epistemologies.

## 참고문헌

- 고프먼, 어빙(Goffman, Erving). 2018. 『수용소: 정신병 환자와 그 외 재소자들의 사회적 상화에 대한 에세이』. 심보선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소영. 2017. 「정신장애를 가진 노숙 청년의 시설 이용 경험: 탈시설화의 이면, 생존을 위한 두 체계의 반복 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권 3호, 83~116쪽.
- 김조은. 2018. 「프랑스 현대 철학의 사건 개념: 베르그손, 들뢰즈, 리오타르의 경우」. 《철학사상》, 80호, 63~94쪽.
- 김현철. 2020. 「도시의 감금회로망적 상상: 유동하는 수용시설의 경계와 그 사이의 몸들을 언어화하기 위하여」. 장애여성공감 엮음.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서울: 와온.
- 권첼, 슈테판(Stephan Gunzel). 2010. 『토폴로지: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 연구』. 이기홍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나영정. 2020. 「누구와 함께 시설사회에 맞설 것인가」. 장애여성공감 엮음.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서울: 와온.
- 들뢰즈, 질(Gilles Deleuze). 1999.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서울: 한길사.
- 들뢰즈, 질·과타리, 펠릭스(Gilles Deleuze; Felix Guattari). 2014.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옮김. 서울: 민음사.
- 르페브르, 앙리(Henri Lefebvre). 2013.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기현 옮김. 서울: 갈무리.
- 매시, 도린(Doreen Massey). 2015.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맥도웰, 린다(McDowell, Linda).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공간연구회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 박형진. 2012. 「배제와 포함의 복지정치: 장애인 생활시설과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권 1호, 53~78쪽.
- 박숙경. 2018. 「공동체(共同體)로서의 함께 삶'을 향한 탈시설화의 철학과 의미 그리고 과제」. 《한국장애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69~95쪽.
- 박숙경. 2021. 탈시설 이념 및 지역사회 거주 권리에 관한 논의. 《월간복지동향》, 268호, 5~10쪽.
- 브라운, 캐스(Kath Browne)·브라운, 가빈(Gavin Brown)·림, 제이슨(Jason Lim)(2018), 『섹슈얼리티 지리학: 페미니즘과 퀴어 지리학의 이론, 실천, 정치』. 김현철·시우·정규리·한빛나 옮김. 서울: 이매진.
- 브라이언트, 레비 R.(Levi R. Bryant). 2020. 『존재의 지도: 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김효진 옮김. 서울: 갈무리.
- 서보경·권미란·나영정·손문수·이인규. 2020. 「한국의 HIV 낙인과 장기 요양 위기」. 《비판사회정책》, 67호, 71~111쪽.
- 서보경. 2021. 「가운뎃점으로 삶과 죽음이 뭉쳐질 때: HIV 감염의 만성질환화와 삶·죽음의 퀴어

- 성」. 《경제와사회》, 129호, 218~257쪽.
- 수재니스, 닉(Nick Sousanis). 2016.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 배충효 옮김. 서울: 책세상.
- 아감벤, 조르조(Giorgio Agamben). 2009. 『예외상태』. 김항 옮김. 서울: 새물결.
- \_\_\_\_\_. 2010.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양철렬 옮김. 서울: 난장.
- 오욱찬·김성희·박광욱·오다은, 2021.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52호, 255~290쪽.
- 앨러이모, 스테이시(Stacey Alaimo). 2018.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윤준·김종갑 옮김. 서울: 그린비.
- 웬델, 수전(Susan Wendell). 2013.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서울: 그린비출판사.
- 장애여성공감 엮음, 2020.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서울: 와온.
- 주윤정. 2019. 「탈시설 운동과 사람중심 노동: 이탈리아의 바자리아법과 장애인 협동조합운동」. 《담론201》, 22권 2호, 141~171쪽.
- 최문정. 2011. 「탈시설 장애여성의 생애체험: 대상에서 주체로」. 《장애의재해석》, 2011 논문집, 215~268쪽.
- 푸코, 미셸(Michel Foucault). 2020.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오성근 옮김. 파주: 나남.
- 한병철. 2020. 『폭력의 위상학』. 김태환 옮김. 파주: 김영사.
- 해러웨이, 도나(Donna J. Haraway). 2019. 『해러웨이 선언문: 인간과 동물과 사이보그에 관한 전복적 사유』. 황희선 옮김. 서울: 책세상.
- \_\_\_\_\_. 2021. 『트러블과 함께 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최유미 옮김. 서울: 마농지.
- Bauman, Z. 1993. *Postmodern Ethics*. London: Routledge.
- \_\_\_\_\_.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Ben-Moshe, L., Champman, C., Carey, A. (eds.). *Disability Incarcerated: Imprisonment and Disa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rooks, I., Best, A. 2021. "Prison fixes and flows: Carceral mobilities and their critical logistics." *Environment and Planning D: Economic and Space*, Vol.49, No.8, pp.1905~1921.
- Brown, E. 2014. "Expanding carceral geographies: Challenging mass incarceration and creating a "community orientation" towards juvenile delinquency." *Geographica Helvetica*, Vol.69, No.5, pp.377~388.
- Deleuze, G., Guattari, F. 1986. *Nomodology: The War Machine*. New York: Semiotext(e).
- Disney, T. 2017. "The orphanage as an institution of coercive mobi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Society and Space*, Vol.39, No.3, pp.469~476.

- Follis, L. 2015. Power in motion: Tracking time, space, and movement in the British Penal Estate. *Environment and Planning D: Economic and Space*, Vol.33, No.5, pp.945~962.
- Gill, N. 2009. Governmental mobility: The power effects of the movement of detained asylum seekers around Britain's detention estate. *Political Geography*, Vol.28, No.3, pp.186~196.
- \_\_\_\_\_. 2013. "Mobility versus Liberty? The Punitive Uses of Movement Within and Outside Carceral Environments." in D. Moran, N. Gill and D. Conlon(eds.). *Carceral Spaces: Mobility and Agency in Imprisonment and Migrant Detention*. London: Routledge.
- Gill, N., Conlon, D., Moran, D. and Burrige, A. 2018. "Carceral circuitry: New directions in carcer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42, No.2. pp.183~204.
- Hamlin, M. 2020. "Second chances in the second city: Public housing and prisoner reentry in Chicago.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38, No.4, pp.587~606.
- Hamlin, M. and Speer, J. 2018. "The Politics of conceptualizing the carceral: A commentary on Moran et al. (2017)."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42, No.5, pp.799~802.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Blackwell.
- \_\_\_\_\_. 1985.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 D. Harvey. *The Urbanization of Capital*.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ran, D. 2012. "'Doing time' in carceral space: TimeSpace and carceral geography."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94, No.4, pp.305~316.
- \_\_\_\_\_. 2013. "Carceral geography and the spatialities of prison visiting: visitation, recidivism, and hyperincarcer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31, No.1, pp.174~190.
- \_\_\_\_\_. 2014. "Leaving behind the 'total institution'? Teeth, transcarceral spaces and (re)inscription of the formerly incarcerated body." *Gender, Place & Culture*, Vol.21, No.1, pp.35~51.
- Moran, D., Turner, J. and Schliehe, A. K. 2018a. "Conceptualizing the carceral in carcer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42, No.5, pp.666~686.
- \_\_\_\_\_. 2018b. "Response to the commentary on 'Conceptualizing the carceral in carceral geography' by Moran et a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42,

- No.5, pp.803~804.
- Morin, K. 2016. "Carceral space: Prisoner and animals." *Antipode*, Vol.48, No.5, pp.1317~1336.
- \_\_\_\_\_. 2019. "Cattle towns, prison towns: Historical geographies of rural carceral archipelagoes." *Historical Geography*, Vol.47, No.1, pp.141~165.
- Schliehe, A., K. 2016. "Re-discovering Goffman: Contemporary carceral geography, the "total" institution and notes on heterotopia." *Geograph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98, No.1, pp.19~35.
- \_\_\_\_\_. 2017. "On 'floaters': Constrained locomotion and complex micro-scale mobilities of objects in carceral environments" in J. Turner, K. Peters (eds.). *Carceral Mobilities: Interrogating Movement in Incarce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Turner, J. 2013. "Re-'homing' the ex-offender: constructing a 'prisoner dyspora'." *Area*, Vol.45, No.4, pp.485~492.
- \_\_\_\_\_. 2016. *The Prison Boundary Between Society and Carceral Space*,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Imprint: Palgrave Macmillan.
- Urry, J. 2007. *Mobilities*. Cambridge: Policy Press.
- Valentine, G. 2007. "Theorizing and researching intersectionality. A challenge for feminist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59, No.1, pp.10~21.
- Wacquant, L. 2001. "Deadly symbiosis: When ghetto and prison meet and mesh". *Punishment & Society*. Vol.3, No.1, pp.95~133.
- 김현철. 2019. "'감금'에서 '감금지리(carceral geographies)'로, 언어화되지 않은 착취와 소외, 감정과 트라우마, 살들의 논의를 위해." <https://blog.jinbo.net/glocalpoint/78>(검색일: 2021.08.09.)
- 대법원종합법률 정보. 1990. "대법원 1991. 12. 30.자 91모5 결정."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621>(검색일: 2021. 08.09.)
- 비마이너. 2019.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5](https://www.beminor.com/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5)(검색일: 2021.08.09.)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 2016. "Big rise in drone jail smuggling incidents.", <https://bbc.in/39gbiKo>(검색일: 2021.08.09).
- V&A webpage. 2018. "The HMP Wandsworth quilt." [https://www.vam.ac.uk/articles/hmp-wandsworth-quilt?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digital&utm\\_content=hmp\\_wandsworth\\_quilt](https://www.vam.ac.uk/articles/hmp-wandsworth-quilt?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digital&utm_content=hmp_wandsworth_quilt)(검색일: 2021.08.09).